

## 교회와 대한민국은 오직 진리 편이다

성경말씀: 고후13:5-8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며 고린도 교회 설립

1. 그는 자비량 목회, 사례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만들며 목회 사역(고전9:11-18)
2. 신실한 목회(고전4:1-2)

그가 떠난 뒤 그를 음해하는 자들이 나타남,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며 고린도를 방문할 의사를 보였는데(고전16:5-6) 이것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하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도는 크게 근심하였으며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과 사역에 대해 진솔하게 편지를 썼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웠는데 심지어 바울에게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말함(고후3:1), 이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후서,

여기에는 사도의 인간적 연약함, 영적 능력, 뜨거운 사랑, 상처받은 감정, 책망, 겸손, 연약한 자들을 위한 열정, 그리스도의 교회의 진보와 고린도 교회 지체들의 성장을 위한 바람 등이 강한 호소와 함께 묘사되어 있다. 사역자를 위한 서신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은 중요한 것을 말한다(8). 진리를 대적하는 ... <...오직 진리 편이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진리를 위한 사람이다. 진리를 대적하면 안 된다. 모든 일에서

### 진리(Truth)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자체가 진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 하나님의 형상(판박이), 진리를 추구하는 인격체

심지어 빌라도도 요19장에서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인냐고 물었다(요18:38).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요8:44), 세상의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마귀에게 도전을 허락함

그래서 창조 이후로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터, 진리와 거짓의 싸움, 곧 끝난다.

죄로 인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롬3:4),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 진리란 무엇인가?

사전의 정의: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기독교의 진리, 우리 교회의 믿음

1. 하나님이 계신다(히11:6, 롬1).
2.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창1:1).
3.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창1:27).
4. 사람의 대적자 마귀가 있고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켜 죄가 들어왔다(창3장, 롬5장).
5. 그래서 아담 이후의 사람은 수태되면서부터 죄인이며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다(시 51:5, 롬3:23).
6.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의를 요구하신다.
7.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 즉 올바른 것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갈2:16).
8. 사람은 하나님의 후손, 창조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구원할 수 있는 파워, 하시려는 의지(롬8:3)
9.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방법, 처녀 탄생,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 죽음, 매장, 부활(고전 15:1-4)
10.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님의 파워로(요3, 엡2:8)
11. 그러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변한다. 거짓에서 진리 편으로 돌아서게 된다(롬12:1-2).
12.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된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요일2:15-17).
13.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갖는다(살전4; 고전15).
14.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한다(벧전 2:23-25).

## 진리를 위한 사람(8)

그리스도인, 0. 개인의 영원한 삶, 1. 사람이 변한다, 2. 삶이 변한다, 3. 교회가 변한다, 4. 사회가 변한다, 5. 국가가 변한다, 6. 부강한 나라, 선도하는 나라,

##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8)

사람은 수태되면서부터 죄인, 마귀의 아들딸로 태어난다. 예외가 없다.

진리를 안다고 말하지만 다 상대적인 진리, 누이 먼 상태, 자기 사상

1. 하나님 부인, 2. 창조 부인, 3. 하나님과 마귀의 갈등 부인, 4. 자기 힘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함(많은 좋은 사람들), 5. 결국 하나님 무시, 6. 거짓을 진실로 알고 거기에 사로잡혀 산다.

개인의 운명: 같은 부류의 사람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지옥 불속에 들어간다.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운명: 거짓이 팽배하여 부패한다. 거짓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선동한다. 넘어간다. 결국 망한다. 8월은 애국의 달, 나라 이야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 창세기 11장부터 말라기까지 정치, 사회, 경제, 국가 이야기

출애굽 사건: 국가를 세우는 것, 법을 세우는 것, 그 이후 나라가 살기 위해 싸움을 하고 치리를 하는 것, 재판관들과 왕들을 포함해서 6-70명의 국가 지도자들의 삶이 기술됨

핵심: 개인과 통치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려고 애쓰면 개인과 국가 번영

핵심: 개인과 통치자, 지도자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마귀의 거짓을 추구하면 개인과 국가 멸망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핵심을 놓치면 성경을 오해하는 것, 잘못 본 것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대다수는 기독교인; 이들이 본 것, 개인과 통치자, 지도자들이 진리를 추구하려고 애쓰면 개인과 국가 번영,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 성경에서 자유 헌법을 만들고 진리를 추구하려 함  
세상에 존재한 나라들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됨

반면에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스, 베네수엘라, 쿠바, 아르헨티나: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감, 모두가 균등하게 잘 사는 나라, 유토피아 건설, 무상 복지, 의료, 교육 등 인기 영합주의, 사유 재산 부정,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차이 부정, 세상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와 국민이 됨

8월 15일 비가 쏟아짐, 서울 집회에 성도들과 함께 나감, 수많은 사람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반대  
그러나 대형 언론사 가운데 단 하나도 보도하지 않은. 이런 모임에 비해 규모가 훨씬 적은 'No 아베' 집회만 집중 보도, 이것이 바로 거짓의 나라 현실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속아넘어간다.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미국의 원자 폭탄 투하, 일본 항복, 해방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대한민국 건국, 건국도 부정하는 국민들, 1919년 운운

1948년 8월 15일 뉴욕 타임즈, 첫 기사는 대한민국의 건국

제목: Korea Set up as Republic.

내용: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3년만에 미군정에 중지부를 찍고 남한 단독으로 주권 국가를 선포하였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주권 국가가 선포되었다.

국가 이름은 The Republic of Korea로 한국말로로는 대한민국(Tai Han Min Kook)이다. 대한민국은 자유(Freedom)와 민주주의(Democracy)를 표방한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그런데도 1919년 운운하며 거짓말을 한다. 지난 70년간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번영하며 모든 것을 누리기도 대한민국 부인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확장(반대세), 반대세는 대개가 좌익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친북 중북 친중, 반미 세력, 선동, 법치 파괴

성경의 판결: 이런 개인과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거대한 거짓의 산을 무너뜨려야 이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다. 사5:20-24

## 무엇이 필요한가?(5-6)

5-6절: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너희가 나를 점검하는데(고후13:3) 사실은 너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교회에서 많은 경우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큰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

바울의 권고: 먼저 너희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하라.

1.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느냐(롬8:9, 16)?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2. 형제들, 교회를 사랑하느냐(요일3:14)?
3.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느냐?(마7:15-20), 언행이 바른가?
4. 세상을 이기고 구별된 삶을 사느냐(요일5:4)? 여기에는 진리를 추구하며 사회의 거짓을 척결하려는 노력도 포함된다.

여기의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리(유3), 하나님의 전체적인 진리(Total truth),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을 지지할 수 있는가? 그런 자들이 횡행하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어떤 분의 말씀: 목사가 목사인지 알 수가 없다. 목사는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람, 내세의 지옥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지옥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목사들이 진짜로 지옥을 아는지 모르겠다.

교회의 문제는 많은 경우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일어난다.

이런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reprobates) 즉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았다가 잃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

6-8절: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6),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가 왜 정치 발언하느냐? 잘못된 사람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체제가 변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어 다른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의 믿음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비폭력으로 진리를 위해 싸우려 한다.

그 이유(13:8)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려고 투쟁하지 않는 자들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목사의 심정(7):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돼도 너희는 정직한 것을 행하기 원한다(롬9:1-3).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직한 국민, 회개할 줄 아는 국민이 되기를 원한다.

비록 우리는 모욕을 당하고 거짓말쟁이라 비난을 받아도 너희만은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유: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만 일하는 자들이다(8). 부정직은 No!(잠21:3)

나는 오직 진리의 복음만 전한다(고전9:16).

### 결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거짓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하는 일만 할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점검, 진리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의 부흥이 있다.

대한민국이 거짓의 산을 무너뜨리고 진리 편으로 돌아서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주시도록.